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성 복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 작품연구논문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을 통한
감정 표현 연구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201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권 수 경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을 통한

감정 표현 연구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김 성 복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2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권 수 경

인 준 서

권수경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 문 개 요

산업이 고도화되고 서비스 분야의 노동이 발전하면서 현대인들은 외적인 감정 관리를 하게 되며 업무상 특정한 감정 상태를 지속적으로 드러내야하는 감정노동이 요구되어 진다. 감정노동이 오래 지속될 때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란 감정부조화 현상을 겪게 되는데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은 얼굴은 웃고 있지만 내면은 절망감, 우울감, 좌절감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심할 경우 자살까지 하게 된다.

본인은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의 사회적 현상을 바탕으로 현 시대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풍자하여 현 사회의 참 모습과 그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정체성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하고자 한다. 또한 작품을 통하여 스마일 인간형상과 동물머리 인간현상의 관계를 은유적으로 풍자하여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의 사회 현상에 문제점을 재인식하고 성찰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본 논문은 2014년 제작된 작품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 I 장 서론에서는 본인작품의 연구 방향과 목적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 II 장 본론에서는 첫 번째,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을 통한 작품 형성배경과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풍자적인 접근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두 번째, 심리 투사 검사인 HTP을 근거한 형태 특징과 표현 방식, 색채 표현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본인의 작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제 III 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작업방향을 제시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 론	1
II. 본 론	3
1. 작품형성의 배경	3
1)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3
2) 풍자적인 접근 방식	5
2. 작품표현방법	6
1) 형태와 구성	6
2) 동물머리 인간형상의 표현	8
3) 작품표현에서의 색채	10
3. 작품분석	12
III. 결 론	29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 smile paradigm , F.R.P, 가변설치, 2014	12
【작품 1】 smile paradigm 스마일인간형상 Detail Cut	14
【작품 1】 smile paradigm 동물머리인간형상 Detail Cut	16
【작품 2】 smile paradigm 개xx, F.R.P, 가변설치, 2014	18
【작품 2】 smile paradigm 개xx Detail Cut	20
【작품 3】 배꼽인사하세요, F.R.P, 35x45x40(cm), 2014	21
【작품 4】 배꼽인사하세요, F.R.P, 35x45x40(cm), 2014	23
【작품 5】 배꼽인사하세요, 캔버스에 드로잉, 16호, 2014	25
【작품 6】 배꼽인사하세요, 캔버스에 드로잉, 16호, 2014	27

도 판 목 차

- 【도판1】 Bear-headed Roman Senator (Anne-Claude-Philippe, Conte de Caylus, Recueil d'antiquites, 1665) 9
- 【도판2】 설총식 <The walker> 합성수지 우레탄채색 2007 9

I. 서론

본 연구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¹⁾이라는 신조어에서 출발한다.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란 복잡한 인간관계, 경쟁, 과도한 업무, 직업 등으로 얼굴은 웃고 있지만 내면은 절망감과 우울한 상태로 감정 부조화를 겪는 현대인들의 현상을 말한다. 오늘날 산업이 고도화되고 서비스업 분야의 노동이 발전하면서 사람을 다루는 능력과 대인관계와의 기술이 더욱 요구되어졌다. 다니엘 벨(Daniel Bell)의 「탈산업사회의 도래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1973)에서도 서비스 분야가 발전하면서 인간 사이의 '소통(communication)'과 '대면(encounter)',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개인이 자아를 변화시키거나 변화를 거부하는 식의 대응'이 오늘날 직업적 관계의 중심축이 되었다고 주장한다.²⁾ 그로 인해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얼굴표정과 몸짓을 만들어 내기 위해 감정 관리를 하게 되며 슬프고 화나고 행복한 사적인 감정들은 집단적 감정으로 변형되어 외적인 표면행위로 특정한 감정 상태를 연출하게 된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나 '정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보이는지'는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³⁾ 이처럼 지금 상태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내면은 점점 우울감, 절망감, 속이 텅 빈 무기력한 상태로 병들어 정신적 스트레스와 심할 경우 자살로 이어 질 수 있다.

1) 일본 쇼인여대(樟蔭女大)의 마코토 나쓰메 교수가 처음 규명한 용어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화가 나거나 슬플 때도 무조건 웃는 증상을 말한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늘 우울해하고 식욕·성욕 등이 떨어지는 증상을 보인다.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을 적절히 해소하지 않으면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며 심해지면 자살하는 예도 있다.

2) 엘리 러셀 흑실드, 『감정 노동 Emotional Labor』 이매진 24P

3) 엘리 러셀 흑실드, 『감정 노동 Emotional Labor』 이매진 311P

본인은 위에서 거론한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의 사회적 현상을 바탕으로 스마일 인간형상의 표면 행위를 고찰하고 현대 사회의 모습을 재인식하고자 한다. 본인이 생각하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의 이미지를 스마일 인간형상과 동물머리 인간형상으로 표현하며 이미지를 단순화하여 조형화 시키고 그 안에서의 관계와 의미를 은유적으로 풍자하였다. 또한 작품 사이에 관계구조와 색채대비를 통해 내면의 감정과 외면의 감정의 부조화를 나타내어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의 사회현상에 대한 본인의 시각을 전시 공간속에서 감상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작품 형성배경과, 표현방법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 하였다.

첫째,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는 사회현상에서 느끼는 문제와 스마일이라는 이중적 표면행위를 작품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해 나아가야 할지 생각하고, 풍자를 통한 은유적 접근방식에 대해 서술하였다.

둘째, 본인의 작품 분석으로, 형태적 특징과 색채연구, 작품 속 내제된 의미, 제작방법에 대해 서술 하였다.

II. 본 론

1. 작품형성배경

1)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Smile Mask Syndrome)

인간은 얼굴에 감정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기대, 불신, 분노, 긴장, 놀람, 슬픔 등의 무수한 감정들을 표정과 몸짓 등으로 나타낸다. 그러나 산업이 고도화되고 서비스 종사자들이 늘어나면서 현대사회에서 감정표현은 직무의 한 부분으로 연기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일을 수반하는 노동이 되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얼굴표정이나 몸짓을 만들어 내기 위해 감정을 관리하고 있다.

엘리 러셀 흑실드(Alie Russell Hochschild 1940~)의 책 『통제된 마음(The Managed Heart)』(1983)을 통해 처음 언급한 개념으로 인간의 감정까지 상품화하는 현대사회의 단면을 감정노동(emotional labor)이라는 말로 표현한 바 있다. 감정 노동은 개인의 감정보다 업무상 연출되어진 특정한 감정 상태를 지속적으로 드러내야하는 노동유형을 일컫는다.⁴⁾ 엘리 러셀 흑실드는 소비자본주의 사회의 환경에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슬프고, 화나는 매우 사적인 감정이 조직 속에서 집단적 감정으로 변형되며, 집단적 감정은 조직 속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져 강요된다고 보았다.⁵⁾

모든 고용된 노동은 감정 노동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직장인, 연예인, 학생, 가정주부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있는 노동형태이다. 승무원, 판매원, 상담

4)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 한경닷컴

5) 박홍주 『감정노동, 여성의 눈으로 다시 보기』, 인물과 사상, 2006년, 85P

원 등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대표적인 감정노동자 할 수 있는데 예로 백화점들은 ‘미소의 여왕’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감정 생산경쟁을 도입하기도 하고 일부 직종에선 노동의 ‘연예화’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감정노동의 고급화를 추구한다.⁶⁾ 또한 온라인상에서 인맥을 관리하고 새롭게 인맥을 쌓거나 강화하는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안에서도 위와 같은 모습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 나를 위한 행동 중 일부는 남을 만족시키려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를 좋게 포장하고 관리하게 된다.

이러한 감정노동을 오래 수행한 근로자의 상당수는 이른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Smile Mask Syndrome)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2013년 취업포털 사이트 사람인에서 직장인 952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인 41%가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명중 4명은 이 증후군에 시달리는 것이다.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은 대인관계를 위해 업무가 힘들어도 밝은 모습을 보여야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마음은 우울한 상태가 이어지는 증상⁷⁾을 말하며 그로 인해 감정부조화를 겪게 된다. 감정부조화란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같은 감정노동자들이 흔히 겪는 감정 상태이며 개인의 실제 감정과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 요구하는 감정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뜻한다. 나는 지금 어떤 느낌과 생각을 하는가에 집중하기보다 나의 생각과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가에 더 집중되어 지금 상태 파악하지 못한다면 내면은 점점 현재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알기 어려워지며, 감정부조화를 초래하여 우울증과 정신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 자살까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본인은 위와 같은 현대 사회의 현상에 주목하였고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의 성격을 바탕으로 스마일이라는 이중적인 표면행위를 작품을 통해 어떻게 표현해 나아가야 할지 생각해보았다. 또한 본인이 생각하는 감정 부조화의 이미지를 감정노동자 - 감정주체자 - 내적 감정의 삼각관계로 구성하여 현시대의 단편

6) 장내희 『공간, 육체, 권력』 문화과학사, 1995, 141~157P

7) 김환표 『트렌드 지식사전』 인물과 상사, 2013

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비판적 태도를 취해 관람객들에게 내제 되어 있는 감정 부조화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어 문제점을 재인식하고 성찰하는 것이 본인작품의 목적이다.

2) 풍자적인 접근 방식

풍자는 새로운 사회의 등장에 적응하지 못하는 구세대나 불합리한 권력의 가치관과 체제를 공격하기 위한 표현이다. 대상에 대해 부정적, 비판적 태도를 취하므로 아이러니(Irony)와 비슷하지만 아이러니보다는 날카롭고 노골적인 공격 의도를 지닌다. 대상의 약점을 폭로하고 비판하는데 있어 직접적인 공격을 피하고 모욕, 경멸, 조소를 통해 간접적으로 빈정거리거나 유머의 수단을 이용한다.⁸⁾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예술가들은 인간의 어리석은 행위를 풍자적 요소를 통해 우회적으로 비판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더 나은 현실세계를 나아가고자 하였다. 풍자 예술에서 인간은 우스꽝스럽고 과장되게 묘사하거나 동물과 곤충을 빗대어 표현하기도 한다.

본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간의 표정은 눈은 웃고 있지 않고 입으로만 억지스럽고 과장되게 웃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면 안에서부터 나오는 행복과 즐거움의 미소가 아닌 보여주기 위한 표면행위에만 집중한다. 신체를 단순화하고 특정부분만 과장시켜 완벽한 인간형상과 달리 왜곡된 형태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감정노동을 시키는 주체 자의 인체에 동물머리를 결합하여 피상적인 동물의 이미지를 은유하고 다수의 표상으로 나타낸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헤드헌팅포털 '에이치알파트너스'가 남녀 직장인 1007명을 대상으로 '찌질 한 직장상사'에 대해 설문조사에서 직장상

8)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 비평 용어 사전』, 국학 자료원 2006.

사를 동물에 비유해봤다. 결과, ‘쥐’가 응답률 45.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여우(24.8%), 뱀(23.1%), 돼지(16.4%), 염소(5.9%), 토끼(5.1%), 곰(3.2%), 개(1.5%), 사자(1.2%), 박쥐(0.8%) 순이었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본인은 작품에서 악어, 곰, 여우, 뱀을 선택하였고 동물들의 이미지를 인간형상에 은유하여 인간의 본성과 문제점을 여러 동물과의 연관성을 보여주며 관람객들에게 조소와 비판, 재성찰을 제공한다.

2. 작품표현방법

1) 형태와 구성

본인의 작품은 스마일 인간형상과 동물머리 인간형상, 내적 감정으로 설정된 쥐로 이루어져 있다. 이 삼각관계를 통해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의 감정부조화를 보여주며 풍자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에서 차용한 스마일은 내면을 가장 잘 숨길 수 있는 방어 수단이다. 본인의 모든 작품은 내면이 드러내지 않은 외적인 표면행위를 재현한다. 표면적으로는 감정과 사고를 인지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감정과 사고에 반응하지 않는 스마일 인간형상이다. 얼굴은 보툴루스(botulinum toxin) 맞은 사람처럼 마비되고 한결같은 표정으로 과장된 미소를 짓고 있으며 외부로 보이기 위한 표면 행위에 집중한다. 또한, 얼굴 이외의 모든 형태는 단순화하여 생략 및 과장되게 표현하여 불필요하거나 무의미한 부분을 배제하고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있다.

신체적 특징은 심리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HTP⁹⁾검사를 근거하여 형태를 구상

9) 구디너프(Goodenough, 1926)가 개발한 인물화 검사(Drawing A Person Test, DAP)인데, DAP는 본래 아동들의 지능을 간편하게 측정할 목적으로 사용되었지만 이후 투사적 성향 검사로서의 유용성이

하였다. 머리는 지능, 공상, 자기통제, 대인관계를 나타내는데 과장된 머리는 지적 욕구, 정신의 중요성을 무의식중에 강조하고 대인관계와 사회적응이 힘든 사람에게 많이 보인다. 눈은 마음의 창으로 환경과 접촉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본인 작품은 눈의 표현을 윤곽선만 나타내고 눈동자는 생략했는데 이는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바라보는지, 즉 외부와 내부의 소통을 단절시키기 위한 의도이다. 입을 너무 크게 표현하는 경우 이는 타인과의 정서적 교류, 애정의 교류에 있어서 불안감을 느끼며¹⁰⁾ 공격성을 의미하는 치아를 단순화하여 수동적인 모습으로 표현한다. 작은 어깨와 둥그스름한 몸통은 신체적 충동의 존재를 부인, 공격성이 약하고 능력에 대해 자신이 없고 부적절감을 느끼고 있으며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상황에서 위축되고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¹¹⁾ 스마일 인간형상의 손은 과장된 크기로 쥐(내적 감정)를 잡고 있다. 손으로 무언가를 잡고 있는 모습은 환경에 대한 통제를 못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외적인 것을 잡고 지탱함으로써 보상하고자 함을 의미 할 수 있다.¹²⁾ 또한 【작품 2】에서 보여주는 뒤로 숨긴 팔은 외부와 접촉되어 있지 않고 적의 있는 충동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표현한다. 배꼽인사의 행위는 감사를 표현하는 긍정적인 의미보다 어른들의 강요와 학습되어진 부정적 표면 행위를 어린아이의 순수함으로 포장하여 표현하였다.

본인은 위와 같이 심리 투사검사인 HTP를 근거하여 얼굴과 신체를 과장되고 특징을 부각시켜 익살스런 형태의 풍자적 표현을 통해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의 의미와 문제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더욱 명료하게 표현한다.

작품을 전시하는 설치 방법 또한 본인 작품의 중요한 역할을 의미한다. 스마일 인간형상은 감정노동을 받고 있는 대상이며 동물머리 인간형상은 감정노동

확인되어 널리 사용되었다.

10) 신민섭 그림을 통한 아동의 진단과 이해 학지사 2003 130P

11) 신민섭 그림을 통한 아동의 진단과 이해 학지사 2003 139P

12) 신민섭 그림을 통한 아동의 진단과 이해 학지사 2003 149P 152P

을 주는 주체 자, 쥐는 감정을 억제하거나 표출하고 싶은 내적감정의 대변하는 매개체이다.

본인의 작품에서는 스마일 인간 형상을 중심으로 작품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작품 1】은 사회구성원 안에서의 감정부조화를 표현하였다. 스마일 인간형상은 빨간 천이 깔려진 낮은 좌대에 앉아 있고 그 뒤로 동물머리 인간형상들이 스마일 인간형상을 지켜보고 있다. 스마일 인간형상은 사회구성원 안에서 무리 없이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 역할을 통해 내적 갈등과 감정 부조화를 겪는 감정노동자이다. 스마일 인간형상은 내면의 감정이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모두가 앉아있는 흰색 좌대의 색을 빨간색으로 대비하여 불안하고 초조한 공간을 설정해 주었다. 또한 좌대들을 독립시켜 사회구성원 안에서 보여주는 각자 다른 내면과 개념들을 분리시켜 놓았으며 중앙에 스마일 인간형상을 배치한 것은 동물머리 인간형상들과 작품을 바라보는 관람객들에게 둘러싸여 구경꺼리나 심판을 받는 듯한 위축된 공간을 제시한다. 【작품 2】은 직사각형 좌대 안에서 삼각 구도를 이루고 있다. 삼각구도는 조화 또는 전체를 보는 성향을 지니는데 직선 구도와 달리 복잡 미묘한 감정 선을 가지면서 구도를 만들어 낸다. 그만큼 삼각구도란 항상 가만있지 못하고 뭔가 터질 것 같은 역동성을 지니게 된다. 스마일 인간형상을 중심으로 감정노동을 주는 주체 자 개를 배치하여 상황을 은유적으로 파악하고 묘사하기 위한 체계적인 구조체로 작품을 구성하였다.

2) 동물머리 인간형상의 표현

본인 작품에서 인간은 과장되게 웃는 표정을 짓고 있는 스마일 인간형상과 동물머리를 한 인간형상으로 나뉘어 있다. 이는 감정노동을 주는 주체 자를 동물로 표현하면서 스마일 인간형상사이의 조소와 풍자적인 태도를 우회적으로 표

현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과 동물은 엄밀히 말해서, 전혀 닮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사람의 얼굴의 어떤 측면들은 우리에게 어떤 동물에 대한 생각을 상기시킨다.”라고하며 코가 둥근 사람은 담대하며 또 천성적으로 사자와 같다고 말한다.¹³⁾ 게으르고 미련한 사람들을 곰과 비유하기도 하고 성격이 온화하고 여성적인 사람은 사슴, 토끼와 같은 연약하고 작은 동물에 묘사하기도 한다.



<도판1> Bear-headed Roman Senator 1665



<도판2> The walker 2007

<도판1> Bear-headed Roman Senator(1665)는 토가를 두르고 동물 머리를 한 인물 입상이다. 탐욕스럽고 게으른 동물이미지를 곰에 비유하여 풍자적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어떤 웅변가를 조롱하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도판2 The walker (2007)> 작품은 동물의 외모와 행동습관을 인간형상에 은유하여 부지런한 뚜벅이를 곰의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한국사회의 자화상과 모순을 풍자하고 있다.

본인 작품에서 악어, 여우, 곰, 뱀은 직장상사, 고객, 불편한 대인관계 등 감정 노동을 주는 사람들이다. 악어는 거짓 눈물 또는 위선적인 행위를 할 때

13) 샹플뢰리 풍자예술의 역사 고대와 중세의 페러디 이미지 102P 103P

많이 쓰이는 용어인 악어의 눈물이 대표적이다. 악어머리 인물형상은 이빨을 드러내지 않아 관객들에게 무섭고 포악한 존재로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나 오히려 이빨이 밖으로 자라는 악어의 특성을 숨김으로써 속내를 잘 알 수 없고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이미지를 우회적으로 풍자하였다. 여우는 약삭빠르고 교활하며 피를 부리는 알미운 존재로 인간형상 중 가장 작은 체구지만 민첩하고 이기적인 꼴불견 인간을 대표하고 있다. 곰은 귀엽고 푸근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으로는 멍청한, 답답한, 게으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본인 작품의 곰 머리 인간형상은 죽대가 없이 두루뭇술하여 진취적이지 못한 나태한 인간을 대변한다. 징그러운 생김새와 소리 없이 움직이는 모습이나 치명적인 독, 날름거리는 혀까지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독사는 치명적인 위협을 주는 인간의 모습을 우회적으로 풍자하였다. 이와 같이 본인 작품은 인간을 동물에 은유하여 유관성을 보여주며 마치 인격적인 대상을 대하듯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스마일 인간형상과 동물머리 인간형상 관계에 감정부조화를 겪으면서 상처 입은 내면의 감정은 쥐로 표현 하였다. 기쁨, 행복과 반대되는 슬픔, 화남, 분노의 감정이 생길 때 쥐새끼, 개새끼라는 비속어를 사용 하는 것처럼 작품에서 보여주는 쥐는 내면의 감정을 의미하며 감정 억제하는 매개체이자 밖으로 표출하고 싶은 대상이다.

본인의 작품들은 풍자적 의미로 표현 되어 공감을 이끌고 또한 현대사회의 현상을 우회적으로 접근하면서 난해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작품을 좀 더 가벼운 조소와 냉소로 이끌어 내고 재성찰을 하게 한다.

3) 작품표현에서의 색채

본인의 작품에서는 색채를 통해 작품의 의미를 더욱 강조하고 무채색과 다양

한 색감의 대비와 점묘법을 통한 감정의 흐름을 느낄 수 있다. 점묘법은 붓의 끝이나 다양한 도구로 점 또는 점과 유사한 세밀한 터치로 묘사하는 회화기법이다. 이 기법을 통해 관람자가 거리를 두면 강렬한 한 색채로 보이지만 사실 하나로 보이게 하는 무수한 터치들은 알 수 없는 감정의 흐름으로 본능적이고 수많은 감정을 말해 주고 있다. 스마일 인간형상의 무채색은 내면의 감정이 들어나지 않고 표면 행위만 맞춰진 외부적 감정을 나타낸다. 동물머리 인간 형상들은 대비되는 다양한 색채와 점묘법을 통해 감정의 흐름을 표현한다.

색채는 인간의 감정에서 오는 다양한 심리 상태를 대변해 주는 표현이다. 본 작품은 색에서 나타나는 심리상태를 무채색과 점묘법의 다양한 색감을 대비하여 감정노동대상과 감정노동 주체 자의 관계를 구분해 주면서 스마일 인간형상을 더욱 부각되게 표현한다.

3. 작품분석



【작품 1】 smile paradigm

【작품 1】 smile paradigm

연도 : 2014

크기 : 가변설치

재료 : F.R.P

제작방법

- 1) 점토 작업 후 석고로 틀을 제작하고 내형 틀에 합성수지를 바른 후 원형작업을 한다.
- 2) 테이핑 작업을 한 뒤 락카 페인트로 채색작업을 한다.
- 3) 아크릴 물감으로 동물머리 인간형상의 머리를 채색한다.
- 4) 보존을 위해 투명색으로 코팅을 한다.

작품설명

본인 작업은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란 신조어에서 출발한다. 서비스 산업의 노동이 발전하면서 사람을 다루는 기술이 더욱 요구되어져 얼굴은 웃고 있지만 내면을 절망감으로 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본인은 이러한 사회현상에 주목하였고 감정노동자-스마일 인간형상, 감정노동 주체자- 동물머리 인간형상, 내적 감정의 삼각관계로 작품을 표현하였다.



【작품 1】 smile paradigm 스마일 인간형상 Detail Cut

작품설명

스마일 인간형상은 표면적으로는 감정과 사고를 인지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감정과 사고에 반응하지 않는 스마일 인간이다. 얼굴은 보톡스 맞은 사람처럼 한결같은 표정으로 과장되게 웃고 있으며 외부로 보이기 위한 표면행위에 집중한다. 눈은 윤곽선만 나타내고 눈동자는 생략했는데 이는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바라보는지, 즉 외부와 내부의 소통을 단절시키기 위한 의도이다. 몸과 공격성을 상징하는 치아는 단순화하여 수동적인 모습을 표현하였다. 동물머리 인간형상과 달리 스마일 인간형상은 무채색을 사용하여 감정의 흐름을 멈춰 놓았다.

스마일 인간형상은 손에 쥐를 잡고 있다. 쥐는 내면의 감정이다. 내면의 불안감과 억압된 감정을 지탱하고 통제하려는 마음을 표현한다.



【작품 1】 smile paradigm 동물머리 인간형상 Detail Cut

작품설명

본인 작품에서 악어, 여우, 곰, 뱀은 직장상사, 고객, 불편한 대인관계 등 감정 노동에 주는 사람들이다. 특정인물을 지칭하지 않고 우리 주변에 누구나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인간을 동물로 은유하여 우회적으로 표현하였다.

악어는 거짓 눈물 또는 위선적인 행위를 할 때 많이 쓰이는 용어인 악어의 눈물이 대표적이다. 악어머리 인물형상은 이빨을 드러내지 않아 관객들에게 무섭고 포악한 존재로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나 오히려 이빨이 밖으로 자라는 악어의 특성을 숨김으로써 속내를 잘 알 수 없고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이미지를 우회적으로 풍자하였다. 여우는 약삭빠르고 교활하며 꾀를 부리는 알미운 존재로 인간형상 중 가장 작은 체구지만 민첩하고 이기적인 꿀벌견 인간을 대표하고 있다. 곰은 귀엽고 푸근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으로는 멍청한, 답답한, 게으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본인 작품의 곰 머리 인간형상은 죽대가 없이 두루뭇술하여 진취적이지 못한 나태한 인간을 대변한다. 징그러운 생김새와 소리 없이 움직이는 모습이나 치명적인 독, 날름거리는 혀까지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독사는 치명적인 위협을 주는 인간의 모습을 우회적으로 풍자하였다. 이와 같이 본인 작품은 인간을 동물에 은유하여 유관성을 보여주며 마치 인격적인 대상을 대하듯 쉽게 이해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동물머리 인간 형상의 머리는 스마일 인간형상과 달리 점묘 기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채색을 통해 감정의 흐름을 표현한다.



【작품 2】 smile paradigm 개xx

【작품 2】 smile paradigm 개xx

연도 : 2014년

크기 : 가변설치

재료 : F.R.P

제작방법

- 1) 점토 작업 후 석고로 틀을 제작하고 내형 틀에 합성수지를 바른 후 원형 작업을 한다.
- 2) 테이핑 작업을 한 뒤 락카 페인트로 채색작업을 한다.
- 3) 아크릴 물감으로 개를 점묘 기법으로 채색한다.
- 4) 보존을 위해 투명색으로 코팅을 한다.

작품설명

스마일 인간형상은 【작품 1】와 같은 맥락이다. 뒤로 손을 감추고 쥐를 잡고 있다. 뒤로 숨긴 팔은 외부와 접촉되고 있지 않고 적의 있는 충동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표현하였다.

언뜻 주인과 장난치면 노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개는 감정노동을 주는 주체 자로 스마일 인간 형상을 괴롭히고 있다. 흔히 하는 것이 알뜰거나 더럽고 뭉뚱이가 좋지 아닐 때 ‘쥐새끼’, ‘개새끼’라는 비속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모티브를 얻어 개를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위협적인 개가 아닌 강아지로 작품을 표현한 것은 절대적이고 권위적, 상징적인 존재감이 아닌 쉽게 상대할 수 있고 귀찮은 존재를 표현하기 위해 작은 강아지로 표현하였다.



【작품 2】 smile paradigm 개xx Detail Cut



【작품 3】 배 품인사하세요

【작품 3】 배꼽인사하세요

연도 : 2014년

크기 : 30x45x40(cm)

재료 : F.R.P

제작방법

- 1) 점토 작업 후 석고로 틀을 제작하고 내형 틀에 합성수지를 바른 후 원형 작업을 한다.
- 2) 테이핑 작업을 한 뒤 락카 페인트로 채색작업을 한다.
- 3) 보존을 위해 투명색으로 코팅을 한다.

작품설명

배꼽인사는 예절과 공경, 감사의 의미로 90도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다. 귀엽고 긍정적인 이미지와 달리 【작품 3】은 어른들의 강요와 보여주는 모습을 위해 학습되어진 부정적인 모습을 표현하였다.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인사하세요’ 앞에 ‘배꼽’이란 단어를 덧붙인다. 엉덩이를 짚 빼고 손을 배꼽에 올려 인사를 하는 행동은 더욱 아이를 귀엽고 예의 바른 사랑스러운 아이들로 만들어준다. 본인은 이 형식적인 인사를 보면서 인사의 의미보다 아이들의 귀여운 제스처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다.

【작품 1】 【작품 2】의 스마일 인간형상을 무채색으로 표현한 것과 달리 다양한 색채를 하였다. 이는 아직은 세상에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아이이기 때문에 감정을 드러나도록 색을 표현하였다.



【작품 4】 배꼽인사하세요

【작품 4】 배꼽인사하세요

연도 : 2014년

크기 : 30x45x40(cm)

재료 : F.R.P

제작방법

- 1) 점토 작업 후 석고로 틀을 제작하고 내형 틀에 합성수지를 바른 후 원형 작업을 한다.
- 2) 데이핑 작업을 한 뒤 락카 페인트로 채색작업을 한다.
- 3) 보존을 위해 투명색으로 코팅을 한다.

작품설명

【작품 4】와 같은 맥락의 시리즈이다. 배꼽인사는 예절과 공경, 감사의 의미로 90도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다. 귀엽고 긍정적인 이미지와 달리 어른들의 강요와 보여주는 모습을 위해 학습되어진 부정적인 모습을 표현하였다.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인사하세요’ 앞에 ‘배꼽’이란 단어를 덧붙인다. 엉덩이를 짚 빼고 손을 배꼽에 올려 인사를 하는 행동은 더욱 아이를 귀엽고 예의 바른 사랑스러운 아이들로 만들어준다. 본인은 이 형식적인 인사를 보면서 인사의 의미 보다 아이들의 귀여운 제스처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다.

【작품 1】 【작품 2】의 스마일 인간형상을 무채색으로 표현한 것과 달리 다양한 색채를 하였다. 이는 아직은 세상에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아이이기 때문에 감정을 드러나도록 색을 표현하였다.



【작품5】 배꼽인사하세요.

【작품 5】 배꼽인사하세요.

연도 : 2014년

크기 : 16호

재료 : 캔버스에 드로잉

제작방법

- 1) 작품의 대상을 구상해서 드로잉을 한다.
- 2) 캔버스에 수성 아크릴 물감으로 드로잉하여 채색한다.
- 3) 아크릴 물감 채색 후 색을 보존하기 위해 바니쉬로 코팅을 한다.

작품설명

【작품 3】와 같은 맥락의 드로잉 작품이다. 입체와 달리 드로잉은 캐릭터화하여 표현하였다. 그림에서 보여주는 쥐는 smile paradigm 시리즈에서 나오는 쥐와는 다른 의미이다. 아이의 내적 감정이기보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잠재적 감정이며 언제 내적 감정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풍선으로 쥐를 은유하여 표현하였다.



【작품 6】 배꼽인사하세요

【작품 6】 배꼽인사하세요.

연도 : 2014년

크기 : 16호

재료 : 캔버스에 드로잉

제작방법

- 1) 작품의 대상을 구상해서 드로잉을 한다.
- 2) 캔버스에 수성 아크릴 물감으로 드로잉하여 채색한다.
- 3) 아크릴 물감 채색 후 색을 보존하기 위해 바니쉬로 코팅을 한다.

작품설명

【작품 3】와 같은 맥락의 드로잉 작품이다. 입체와 달리 드로잉은 캐릭터화하여 표현하였다. 그림에서 보여주는 쥐는 smile paradigm 시리즈에서 나오는 쥐와는 다른 의미이다. 아이의 내적 감정이기보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잠재적 감정이며 언제 내적 감정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풍선으로 쥐를 은유하여 표현하였다.

Ⅲ. 결 론

본 논문은 감정 노동에서 발생하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란 사회적 현상에 주목하여 그 안에서 겪게 되는 감정부조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본인은 긍정적인 감정으로 생각했던 스마일이란 감정이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을 통해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라는 속담처럼 남들에게 좋은 인상으로 관리하는 방편과 내면을 가장 잘 숨길 수 있는 속임수와 방어 수단으로 이중적 표면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본인은 이러한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을 통해 스마일로 포장된 이중적 표면 행위와 감정 부조화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재구성하여 작품으로 표현하였다. 스마일 인간형상과 동물머리 인간형상이란 형태를 설정하여 감정부조화의 아이러니한 관계를 표현하며 얼굴에 나타나는 선천적이고 표현적인 감정표현이 아닌 특정한 조직 내에서 요구되고 학습되어진 감정노동의 표면 행위를 스마일이란 방어수단으로 더욱더 과장되고 인위적이게 표현하고 있다. 또한 난해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주제를 동물이란 친숙한 이미지로 은유적이게 풍자하여 냉소와 조소로 이끌어내고 감정부조화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문제점을 재인식, 성찰하는 역할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주관적인 감정을 형상의 표현과 구성, 색 대비만으로 스마일 마스크증후군에서 겪는 감정부조화의 사회 현상을 다 표현하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었다.

본인은 이번 연구를 통해 심도 깊은 반성과 성찰을 마련하고 앞으로도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주목하여 연구함으로써 창의적 작업들에 대한 작품을 제작해 나가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김환표, 『트렌드 지식사전』 인물과 사상 2013년
- 신민섭 『그림을 통한 아동의 진단과 이해』 학지사 2003년
- 박홍주 『감정노동, 여성의 눈으로 다시 보기』 인물과 사상 2006년
- 장내희 『공간, 육체, 권력』 문화과학사 1995년

《번역본》

- 엘리 러셀 후실드 『감정 노동 Emotional Labor』 이매진 2013년
- 샹플뢰리 『풍자예술의 역사 고대와 중세의 패러디 이미지』 까치 2001년

《홈페이지 및 기타》

- 환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환경닷컴
-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 비평 용어 사전』 국학자료원 2006년

도 판 목 차

- 【도판1】 Bear-headed Roman Senator (Anne-Claude-Philippe, Conte de Caylus, Recueil d'antiquites, 1665) 9
- 【도판2】 설총식 <The walker> 합성수지 우레탄채색 2007 9

ABSTRACT

The Study on Emotional Expressions by Smile Mask Syndrome

-around my works-

Gwon, Su-gyeong

Dept. of Sculpture

Graduate School of Sculpture

Sungshin Women's University

As industry is advanced and labor of service area is developed, abilities to treat people and technology of human relations are more inquired. Therefore, modern people manage external emotion and experience emotional disharmony by emotional labor. During the smile mask syndrome shown when emotional labor is continued for a long time, people suffer from emotional stress such as depression, melancholy and frustration internally in spite of smiling face. If it's severe, they commit suicide.

This researcher intends to criticize and satirize problems of current period and reinvestigate true appearance of current society and the identity of people living in there from a new angle, based on the social phenomena of smile mask syndrome. In addition, this researcher focused on introspection of problems of smile mask syndrome by satirizing relations between form of smiling person and form of animal-head person through the work.

Based on the works produced in 2014, This thesis is organized as follows.

In the Chapter I, Introduction, described direction and purposes of the study on this researcher's work.

In the Chapter II, Main body, firstly described satire which expresses work forming background and social phenomena indirectly through the social phenomena of smile mask syndrome. Second, formative expression and color expression for human form based on HTP were described and based on them, each of this researcher's works was analyzed.

In the Chapter III, Conclusion, arranged contents of this thesis and suggested following direction of works.